〈녹두영감〉과 〈팥죽할멈〉 설화의 문화사적 이해*

신연우**

차례

1. 머리말
2. 〈녹두영감〉 설화 자료와 의미 추정
3. 〈팥죽할멈〉 설화와의 대비적 고찰
4.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
5. 맺음말

〈국문 개요〉

〈녹두영감〉 설화는 농사를 방해하는 토끼와 영감의 싸움을 그리고 있다. 토끼를 혼내려던 영감이 오히려 토끼에게 속아 손자를 삶아먹고 집은 화재로 잃는다는 충격적인 내용이다. 영감과 토끼의 적대적 관계는 농사를 두고 벌어진다. 이를 농경시기에 접어든 인간이 자연-동물과의 적대적 싸움을 벌이던 모습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토끼는 인간이 자연을 점령할수록 삶의 위협을 받아 저항하며, 노인은 타협이 아니라 토끼를 처치하려는 악수를 두다가 파멸하고 말았다.

이와 대조되는 것이 〈팥죽할멈〉 설화이다. 할머니가 혼자 팥농사를 하고 있는데 호랑이가 와서 잡아먹겠다고 위협한다. 할머니는 멍석, 바늘 등 살림살이 도구들의 도움을 받아 호랑이를 물리친다. 영감은 졌던 싸움에 왜 할머니는 이기는 것일까? 영감과 달리 팥죽할멈은 인공적 도구, 인간친화적 도구들을 이용한다. 주변 생활도구들의 도움을 받는 것이다. 도구의 도움이 없던 영감의 시대와 달리 도구를 통해 자연과의 새로운 관계를 형성해나가는 모습을 반영한다. 녹두영감이 자연을 적대시하고 파멸하는 남성적 모습을 보여주는 것과 달리 팥죽할멈은 자연과 타협을 시도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추구하는 여성적 원리를 제시한다고 이해할 수도 있다.

이러한 시각에서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를 다시 조망해볼 수 있다. 이 설화에는 도구를 이용해 호랑이를 물리치는 오누이의 모습이 팥죽할멈과 닮은 면이 있다. 그러나 그

* 이 연구는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내연구비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과제번호: 2015-1260)
** 서울과학기술대학교 교수

결말은 원래 호랑이에게 아이들이 죽임을 당하는 것으로 보인다. 중국이나 몽고 설화에는 해와 달이 되는 결말이 없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는 인간이 호랑이 앞에서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과거의 상태를 담고 있는 설화이다. 이 설화는 〈녹두영감〉이나 〈팥죽할멈〉과 마찬가지로 인간과 동물의 갈등, 농경과 자연에 대한 인간의 대응과 변화를 보여주던 설화로 이해할 수 있다.

원래 호랑이에게 희생되는 것으로 끝났던 그 설화는 그 자체로 끝나는 각편도 많지만, 다른 결말이 추가된 것들이 두 종류 있다. 오누이가 해와 달이 되는 결말은 아이들이 호랑이에게 희생된 것을 신화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결말과 달리 〈팥죽할멈〉설화와 연결되는 것은 도구를 이용해 동물을 제압해 문명을 일구어나가던 단계의 인간의 모습을 그린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주제어 : 〈녹두영감〉, 〈팥죽할멈〉,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 문화사, 수렵, 농경, 도구, 자연

1. 머리말

임석재 선생이 1927년에 채록한 경상북도 청도의 설화에 〈녹두영감과 토끼〉라는 것이 있다. 녹두 농사를 방해하는 토끼를 혼내주려던 영감이 오히려 토끼에게 속아 자기 손자를 삶아먹고, 살던 집마저 화재로 잃는다는 내용의 설화이다. 영감과 토끼의 적대관계가 예사롭지 않고 지나치게 잔인하여 충격적이다. 여러모로 주목해야 마땅하지만 유감스럽게도 이해하기 쉽지 않다.

이 설화는 『팥이 영감과 우르르 산토끼』[1], 〈녹두영감과 꾀보 토끼〉[2], 〈녹두영감〉[3] 등 어린이용 동화로 다시 각색되어 사랑을 받고 있다. 그러나 이 동화들은 어린이에게 들려주기 어려운 잔인한 장면을 삭제하고 笑話로

1) 박재철 글·그림, 『팥이 영감과 우르르 산토끼』, 길벗어린이, 2009.
2) 서정오, 『옛이야기 보따리』, 보리, 2011.
3) 임혜령 편·김정한 그림, 『다시 읽는 임석재 옛날이야기1』, 한림출판사, 2011, 49-57쪽.

만 읽히도록 각색을 하여서, 원본 설화의 본질적인 면모에 접근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동화가 아닌 설화로서 검토되어야 할 일이지만 아직까지는 연구 성과가 거의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4] 다만 김기호는 토끼 설화를 전반적으로 검토하는 자리에서 이 설화를 언급하였다. 삐아제의 아동 심리 발달 과정 이론을 이용하면서 이 설화 유형의 트릭스터 토끼는 자기중심성을 벗어나지 못하는 단계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하였다.[5] 토끼 설화를 전반적으로 해명하는 데에 심리학적 설명이 유용한 면도 있지만 〈녹두영감〉 설화[6] 자체의 본질적인 의미를 분석하는 것이 우선적으로 필요해 보인다. 성숙하지 못한 단계의 자기중심성을 보여주는 트릭스터 이야기들을 가령 북미 원주민들은 왜 그렇게 많이 이야기하는가? 성인인 그들이 성숙을 위해서 그렇게 한다고 말할 수는 없다. 그보다는 이 이야기의 대결과 공격성은 사회적 성격을 갖는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본고는 의미를 해명하기 어려운 이 설화를 대상으로 우선 해석의 첫걸음을 떼어놓는 작업이다.

이와 유사한 성격의 설화로 같이 살펴보아야 할 것에 〈팥죽할멈〉 이야기가 있다. 이 역시 어린이용 도서로 여러 차례 출판되었고[7] 어린이들이 좋아할 만하게 편집되었다. 그러나 이 설화도 원래는 어린이용으로 생성된 것 같지 않다. 이에 대하여는 유아교육 쪽에서 한 차례 연구가 있었다. 신혜선은 이 설화를 재창작한 동화들을 대상으로 하여, 심리학, 사회학, 기호학 세 관점에서 분석하였다.[8] 그러나 그 결과가 "강자인 지배자가 약자를 괴롭

4) 『한국민속문학사전 : 설화』, 국립민속박물관, 2012,에도 이 설화에 관한 항목이 없다.

5) 김기호, 「트릭스터 토끼설화군의 계통」, 『한국사상과 문화』 40, 한국사상과문화학회, 2007, 87-88쪽.

6) 이하 논의에서는 〈팥이 영감과 우르르 산토끼〉, 〈녹두영감과 꾀보 토끼〉, 〈녹두영감〉 등의 제목을 〈녹두영감〉으로 통칭하기로 한다.

7) 소중애, 『팥죽할멈과 호랑이』, 비룡소, 2010.
박윤규, 『팥죽할멈과 호랑이』, 시공주니어, 2007.
양재홍, 『팥죽할멈과 호랑이』, 교원, 2000.
서정오, 『팥죽할멈과 호랑이』, 보리, 2003.

히면 벌을 받게 된다는 신화를 내포하고 있다"(484쪽)는 식이어서 지나치게 단순한 결론으로 유도되고 있다. 유아용 교훈으로 마감되어, 설화 원전에 대한 검토의 필요와 함께, 설화 본래의 의미에 대한 천착이 필요함을 일러주고 있다. 권혁래도 이 설화 항목을 기술하면서 '호랑이는 탐욕스러운 권력자이고 할머니와 물건들을 민중으로 보아 약한 존재라도 지혜와 힘을 합치면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다는 교훈'을 주는 것으로 파악했다.[9]

그러나 이 설화들은 이러한 소박한 주제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된다. 〈팥죽할멈〉설화를 〈녹두영감〉설화와 함께 對比하면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다고 보아 연구를 진행하고자 한다. 겉보기로는 할아버지가 토끼를 이기고 호랑이가 할머니를 이기는 것이 현실적으로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이 설화들은 정반대의 결말을 보여준다. 할아버지는 지고 할머니는 이긴다. 이것을 자연과의 대응으로 보아서 겉보기보다 깊고 중요한 의미를 찾아보고자 한다. 별개의 것으로 바라볼 때 막연하던 것이 대조를 통해서 의미가 선명해진다고 생각해서 그 과정을 보이고자 한다.

2. <녹두영감> 설화 자료와 의미 추정

먼저 〈녹두영감〉 설화를 살펴본다. 이 설화는 『임석재 전집』과 『한국구비문학대계』에 다음과 같이 채록되어 있다.

① 임석재 전집 1, 『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편1, 24쪽. 〈노파와 토끼〉
② _____, 97쪽. 〈토끼와 호랑이

8) 신혜선, 「전래동화 「팥죽할멈과 호랑이」의 의미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14권6호,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09, 467-487쪽.
9) 권혁래, 〈팥죽할멈과 호랑이〉, 『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2』, 국립민속박물관, 2012, 762쪽.

와 할머니〉

③ 임석재 전집 7,『한국구전설화』, 전라북도편1, 179쪽, 〈팥이영감과 토끼〉

④ 임석재 전집 10,『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편1, 96쪽. 〈토끼와 영감〉

⑤ _____, 96쪽. 〈할아버지와 토끼〉

⑥ 임석재 전집 12,『한국구전설화』 경상북도편, 57쪽. 〈녹두영감과 토끼〉

⑦ _____, 59쪽. 〈녹두영감과 토끼〉

⑧『한국구비문학대계』7-4, 경북 성주, 225쪽, 〈어리석은 녹두영감과 꾀 많은 토끼〉

⑨『한국구비문학대계』7-10, 경북 봉화, 870쪽, 〈토끼에게 당한 녹두첨지〉

⑩『한국구비문학대계』7-13, 대구, 40쪽. 〈토끼 잡아 봉변당한 노부부〉

⑪『한국구비문학대계』8-5, 경남 거창, 93쪽, 〈꾀 많은 토끼〉

이들 각편으로부터 내용을 종합하여 〈녹두영감과 토끼〉 이야기의 서사 구성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가) 영감이 녹두를 심었다. 토끼들이 자꾸 따 먹는다.

(나) 영감은 입, 항문, 콧구멍을 대추, 곶감, 밤 등으로 막고 죽은 척하고 밭에 누웠다. 토끼들이 죽은 줄 알고 초상을 치러주는데 영감이 갑자기 일어나서 토끼 한 마리를 잡았다.

(다) 영감이 토끼를 솥에 넣고 불을 빌리러 간 사이에 토끼는 방에서 자고 있는 손주를 솥에 넣고 손주 자리에 가 눕는다. 영감이 솥에 불을 때고 손주를 삶아 먹는다. 토끼가 튀어 나오며 손주를 삶아 먹는다고 조롱한다.

(라) 토끼가 영감에게 자기를 잡는 법을 거짓으로 일러준다.(다리, 장독, 나락, 지붕). 결국 토끼에게 속아 영감의 집까지 불이 나 타버린다. 토끼는 영감을 놀리며 사라진다.

①은 앞부분 서사가 제거된 간략한 축약본이며 주인공도 영감이 아니라 노파로 되어 있다. 결말은 자기가 아이를 삶은 것을 알게 된 노파가 슬퍼서 울다가 죽었다. ②는 호랑이를 속이고 태워 죽여 먹은 토끼 이야기에 이 설화를 이어놓아 길어졌다. 토끼가 호랑이에 이어 노친네를 속여먹는 이야기로 일관되어 있다. ③은 녹두가 아닌 팥으로 되어 있으나 서사 구성은 완결되어 있다. ④와 ⑤는 녹두가 아니라 풀이며 기본 서사를 갖추고 있다. ⑥은 내용이 풍부하고 상세하다. ⑦은 ⑥의 핵심만 기술한 것 같이 되어 있으며, 영감은 대추 등으로 몸의 구멍을 막는 장면이 없이 바로 죽은 체 한다.

⑧과 ⑨는 전형적인 녹두영감 이야기이다. 영감은 누더기를 쓰고 죽은 체 하기도 한다. ⑩은 주인공이 영감 할멈 부부로 설정되어 있으며 녹두 화소가 없이 토끼를 잡았다가 봉변을 당했다고 하면서 “그라이 인자 산짐승을 잡으마 안 딘다 카는기라.”라는 교훈이 결말 부분에 있다. ⑪도 역시 부부가 주체이며 녹두 이야기가 빠져 있고 잡은 토끼 때문에 집안이 망한 이야기로만 되어 있다. 『임석재 전집』 12의 ⑥과 『한국구비문학대계』 7-4의 ⑧이 이야기로서의 구성이 탄탄하고 내용이 풍부하다.

이 설화가 임석재 전집에 가벼운 笑話들과 함께 수록되어 있지만, 단순히 우스갯소리로만 간주하고 넘어가기에는 미심쩍은 측면이 있다.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영감과 토끼의 적대적 관계이다. 토끼를 잡으려던 영감은 토끼의 꾀에 넘어가서 자기 손자를 삶아 먹고 만다. 둘째로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둘의 싸움이 물리적인 싸움이 아니라 속고 속이기의 지적인 싸움이라는 것이다. 영감은 토끼를 잡으려고 죽은 척을 하고 토끼는 연이어서 영감을 속여 먹는다. 사냥으로 동물을 잡던 모습이 아니다. 동물과의 관계에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은 아닌가 생각해보게 한다. 셋째로는 이 둘의 싸움이 농사일을 두고 시작된다는 점이다. 농사란 무엇인가? 더 이상 사냥하던 자연

이 아니라는 것, 자연을 변형시키기 시작하는 인간의 모습이 바로 농사와 더불어 비롯된다는 것을 고려하게 된다.

이런 문제들을 일관성 있게 이해하는 방법은 무엇일까? 다시 설화의 처음으로 돌아가 보자. 토끼와 영감은 녹두를 놓고 다툼을 벌인다. 영감은 녹두를 밭에 심는데 토끼들은 와서 자꾸 녹두를 먹어버린다. 여기서 심각한 갈등이 빚어졌다. 영감은 자신이 재배한 녹두를 가지려고 하는데 토끼가 그것을 가로채자 화가 나서 토끼를 잡으려 한다. 토끼는 동물을 대표해서 나왔다. 영감이 밭과 녹두를 소유하려고 하는데 동물이 그것을 방해하는 것으로 보아 이 이야기는 농경에 접어드는 시기, 인간이 닥친 자연-동물계와의 적대적 어려움이 그 배경이 되고 있지는 않은가 가정해볼 수 있다. 수렵에서 농경으로의 이행기에 인간이 겪은 혼란과 실패의 기록으로 이해해보고자 하는 것이다.

영감은 밭을 경작하여 녹두를 심는다.[10] 그러나 여의치 않다. 토끼가 와서 먹어버리기 때문이다. 토끼는 인간의 밭 경작을 방해하는 동물 또는 자연이다. 밭은 자연이 아니다. 인간의 노력으로 가공된 인공물이다. 그것은 문화로 나아가는 걸음을 보여준다. 자연 속에서 밭을 일구어 농경에 접어드는 것이 용이하지 않았음을 토끼를 통해 보여준다. 영감은 꾀를 내본다. 죽은 체하여 토끼를 잡기로 하고 성공했다. 자연을 이겨낸 첫 모습이다. 솥에 삶아 죽이고자 한다. 이 둘의 적대감은 이토록 강하다. 둘은 서로 용납될 수 없는 것이다. 단순히 토끼와 영감의 笑話로 이해할 수 없게 한다.

그러나 불을 빌리러 간 사이에 토끼는 솥에서 나와 오히려 손주를 솥에

10) "우리나라에서는 부소산성(扶蘇山城)내의 백제 군창지에서 출토된 바 있으므로 청동기시대에 이미 재배가 시작된 것으로 추측된다."("녹두"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고 하는 것도 이 이야기가 녹두를 통하여 유서가 오래된 것임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해볼 수 있다.

넣어버린다. 영감은 결국 삶아진 손주를 토끼인 줄 알고 먹는다. 토끼는 영감을 놀린다. 이 역시 토끼에게도 영감에 대한 적대감이 가공할만한 것임을 보여준다. 그것은 현대에서 돌이켜 볼 때, 인간이 자연을 개발하며 망가뜨려 동물의 삶의 터전을 붕괴시킨 것을 고려해보면, 토끼나 동물의 입장에서 보아 인간의 밭이 넓어질수록 자신들의 삶이 위태로워진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일 수 있다. 인간이 문화를 창조하는 역사의 시작은 자연, 곧 동물의 세계가 위축되고 파멸하기 시작하는 역사의 시작에 다름 아니다. 한 인류학자는 중석기시대의 인류를 묘사하기를 "인간의 약탈로부터 안전할 수 있는 것이 없을 정도였고, 인간은 어떤 종의 동식물을 완전히 멸종시켜버리기도 하였다."[11]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종속적인 지위에 머물러 있었다'고 하면서 그는 이어서 이렇게 말한다. "자연의 번창 여부는 그들에게도 똑같은 식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었다. 음식물을 제공해 줄 식물들을 말려죽인 한발과 동물의 떼를 휩쓸어버린 질병은 인간에게 직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12] 이를 자연의 복수라고 생각해보면 설화적인 맥락이 잡힐 수도 있다.

영감이 가지고 있는 불과 솥이라는 도구에도 불구하고 영감은 결국 토끼에게 패한다. 손주를 삶아 먹게 하는 것은 자연과 인간의 적대 관계가 극대화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자연과의 적대적 갈등에서 인간의 패배는 사실 인간이 자초한 것이기도 한다. 영감은 인류의 초기 농경 역사에서 그러했듯이 본래 토끼의 영역이었을 자연을 어떠한 사전적 양해 없이 무단으로 점거하고 개간하고 농작물을 경작했을 것이다. 어찌보면 토끼가 영감이 경작한 녹두를 먹어치우는 것은 자연적 존재의 지극히 자연스러운 먹이 활동일 뿐이다. 그러나 영감은 토끼가 자신의 농경을 방해하고 작물을 망친 주범으로

11) 슈스키/컬버트, 『인류학개론』, 이문웅 옮김, 일지사, 1981(1998년 10쇄), 124쪽.
12) 앞의 책, 124쪽.

인식한다. 영감은 어떠한 대화나 타협적 시도 없이 토끼를 처치하고 말겠다는 극단적 방법을 취한다. 이야기 속에서 토끼는 인간처럼 말을 할 수 있는 존재라고 설정되어 있다. 그럼에도 영감은 농경과 경작물, 농토와 자연에 대해 토끼와 대화를 통해 함께 어울려 사는 조화로운 삶을 꾀하는 대신 그 모든 것을 혼자의 것으로 독점하기 위해 토끼를 처치하는 극단적인 방법을 강구한다.

그러나 영감이 토끼에게 패하고 마는 결말을 통해 자연에 대한 인간의 적대적 투쟁은 결코 성공할 수 없음을 확인할 수 있다. 토끼는 영감의 손자를 죽음으로 몰고 가며, 또한 삶의 터전인 집마저 화재로 소실시킨다. 여기에서 손자의 죽음과 집의 소실은 중요한 상징적 의미가 있어 보인다. 영감에게 손자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손자의 부모, 즉 영감의 아들 내외 역시 함께 살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자료에서 영감의 아들 내외의 모습은 명시적으로 드러나지 않는다. 토끼와 갈등하던 영감의 불행이 아들 내외가 아닌 손자에게 미치고 있다. 이러한 祖孫의 설정은 극의 재미를 극대화하는 장치 이외에 자연에 대한 조상의 적대적 행위가 결국은 그 후손에게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만다는 자연의 이치를 보여주는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자연과 타협하고 조화하지 않는 인류의 독단적이고 적대적인 행위는 결국 자연을 황폐화시켜 인류의 미래마저 위기로 내몰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될 것이다. 이런 관점에서 영감의 삶의 터전이 집이 화재로 소실되는 사건도 이해할 수 있다. 자연과 공존을 꾀하지 않는 인간의 욕심과 독단은 인류의 존폐마저 위협하는 불행을 자초하게 되는 것이다. 인간은 결코 적대적인 방법으로 자연을 이길 수 없는 것이다.

〈녹두영감〉에서 보이는 이러한 인간과 자연의 갈등은 인간이 자연을 문화로 개척해나가기 시작하던 초기의 모습으로도 이해된다. 자연의 일부로서의 인간이 막 자연에서 벗어나던 찰나, 인간은 조화와 공존이 아닌 비타

협과 극단의 방식의 자연에 맞서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점에서 왜 하필이면 토끼인가 하는 질문을 할 수 있다. 이 이야기는 전체가 꾀를 쓰기, 속이기에 대한 이야기이다. 동물 중에서는 토끼가 지혜로운 동물로 알려져 있다. 영감이 처음에 꾀를 썼듯이 인간은 결국은 꾀 즉 지혜를 이용해서 자연을 극복하고 동물을 제어한다. 동물 중에서 지혜의 상징인 토끼를 끌어들여 인간의 싸움이 힘이 아니라 지혜의 싸움이었음을 말한다고 보인다.

더 적극적으로 토끼의 의미를 고찰해볼 수 있다. 이 이야기에서 토끼는 음식 탐하기, 속이기, 변신, 훔치기, 욕설하기, 죽이기 등을 자행하는 동물로서, 이 이야기는 전형적인 토끼 트릭스터(trickster)담이다. 이만큼 전면적으로 트릭스터의 면모를 드러내는 이야기는 우리에게 그리 많지 않다. 트릭스터는 혼란과 무질서를 가져오는 존재이다. 트릭스터담에 보이는 혼란은 하나의 시대에서 다음 시대로의 이행기가 이유인 것으로 생각한다. 기존의 질서가 무너지고 아직 다음의 질서는 나타나지 않은 시대에 트릭스터가 활동한다.[13] 새로운 질서를 재창조하기 위하여 무질서와 파괴와 혼란을 가져온다. 이 이야기에는 나타나지 않지만 트릭스터의 정 반대의 측면은 창조이기도 하다. 파괴와 창조가 트릭스터의 역할이다. 이행기의 경계성, 이중성을 트릭스터가 담보하기 때문이다. 우리나라 설화에서 트릭스터 동물은 흔히 토끼 또는 호랑이이다. 호랑이를 내세웠다면 속고 속이기보다는 물리적인 싸움의 양상으로 진행되기 쉽기에, 꾀를 강조하는 이 이야기에서는 힘보다는 꾀를 드러내는 트릭스터로서 토끼가 주인공으로 선택되었다고 보인다.

그런데 영감은 여기서 실패했다. 즉 영감의 단계는 인간이 자연을 문화로 전환시키는 과정에서 대립하고 갈등하던 시기의 것으로, 인간이 지혜를

13) 그 대표적인 사례가 무속서사시인 〈창세가〉의 미륵과 석가의 꽃피우기 경쟁에서 보이는 석가의 트릭스터적인 면모일 것이다. 그 비슷한 사례는 제주도 무속서사시인 〈천지왕본풀이〉에서도 확인된다.

제대로 발휘하여 대화와 조화를 꾀하고 결국은 동물세계까지 제압하는 단계까지는 이르지 못하고 있다. 그 단계를 보여주는 것은 〈팥죽할멈〉 유형이다. 임석재 전집에서 종종 〈녹두영감과 토끼〉 이야기 바로 뒤에 자리 잡는 〈날파리 밤 송곳 멍석 지게가 도와준 할머니〉는 바로 팥죽할멈 이야기이다.

3. <팥죽할멈> 설화와의 대비적 고찰

〈팥죽할멈〉 이야기의 자료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① 임석재 전집 2,『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편2, 58쪽. 〈할머니를 잡아먹으려던 호랑이〉
② 임석재 전집 4,『한국구전설화』, 강원도편, 165쪽. 〈할머니를 구해준 총알 송곳 맷돌 덕석 지게〉
③ 임석재 전집 5,『한국구전설화』, 경기도편, 121쪽. 〈할머니를 구해준 지게 쇠똥 바늘 맷돌 달걀〉
④ 임석재 전집 6,『한국구전설화』, 충청북도편, 67쪽. 〈할머니와 호랑이〉
⑤ 임석재 전집 7,『한국구전설화』, 전라북도편1, 181쪽. 〈노인과 호랑이〉
⑥ _____, 182쪽. 〈여인을 도운 계란 자라 절구통 멍석 지게 작대기〉
⑦ _____, 184쪽. 〈할머니를 도운 계란 자라 물개똥 송곳 절구통 멍석 지게〉
⑧ 임석재 전집 9,『한국구전설화』, 전라남도편, 62쪽. 〈할머니를 도와준 파리 바늘 달걀 게 절구 덕석 지게〉

⑨ 임석재 전집 10, 『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편1, 97쪽. 〈할머니를 도운 파리 달걀 게 덕석 지게〉
⑩ 임석재 전집 12, 『한국구전설화』, 경상북도편, 59쪽. 〈날파리 밤 송곳 지게 멍석 지게가 도와준 할머니〉
⑪ 『한국구비문학대계』 8-4, 경상남도 진주시, 308쪽. 〈호랑이와 할머니〉
⑫ 『한국구비문학대계』 8-5, 경상남도 거창, 175쪽. 〈내기한 호랑이와 할머니〉
⑬ 손진태, 『조선민족설화의 연구』, 135쪽, 〈쇠똥에 자빠진 범〉

이 외에 『한국구비문학대계』에 유사한 이름의 설화가 있다. 2-6, 강원도 횡성, 560쪽. 〈팥죽할멈과 호랑이〉/ 7-10, 경상북도 봉화, 331쪽. 〈팥죽할머니〉/ 7-12, 경상북도 군위, 144쪽. 〈팥죽할머니 이야기〉가 있지만 이들은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변형으로 4장에서 언급하기로 한다.

이 설화 유형에서 가장 보편적인 것은 할머니가 혼자 팥밭을 매거나 팥을 거두고 있는데 호랑이가 와서 잡아먹겠다고 하니 팥죽을 쑤어 먹은 후에 잡아먹으라며 호랑이를 돌려보내는 각편이다. 이 설화 유형은 이렇게 정리될 수 있다.

(가) 팥죽할멈 혼자 힘겹게 팥밭을 맨다.
(나) 호랑이가 와서 밭을 매주고(또는 밭매기 내기를 하고) 할머니를 잡아먹으려 하자 추수해서 팥죽을 쑤어 먹고 나서 잡아먹으라 한다.
(다) 추수를 하고 난 할머니가 이제 죽을 일만 남아 울고 있자, 날파리 달걀 바늘 작대기 송곳 멍석 지게 등이 와서 이유를 묻고 팥죽을 주면 도와주겠다고 한다.
(라) 호랑이가 오자 날파리 달걀 바늘 송곳 멍석 지게가 도와주어서 호랑이를 죽이고 할머니는 잘 살았다.

〈녹두영감〉 설화처럼 이 이야기도 주인공이 농사를 짓고 동물과 대결하

는 이야기이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유사하게 농경이 시작되는 시점을 배경으로 한다고 가정해볼 수 있을 것 같다. 밭매기 내기를 하는 장면은 특히 이 둘이 자연의 생산성을 놓고 경쟁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다. 가령 ⑨의 자료에서는 할머니가 팥밭을 매고 있는데 호랑이가 와서 내기하자고 한다. "밧을 매는데 불범은 뒷발로 허비고 앞발로 헤비고 해서 이깄다."[14] 고 한다. 앞발 뒷발로 밭을 매는 호랑이에게 쭈그리고 앉아 일하는 할머니는 내기에 지고 만다. 인간이 호랑이와 같은 짐승보다 자연적인 능력에서 뒤떨어지는 것을 그렸다고 볼 수 있다. 그래서 할머니는 패배하게 되어 있다. 녹두영감과 같이 꾀를 써 보아도 결국 지고 말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이야기에서는 할머니는 호랑이를 물리치고 잘 살게 되어 할머니의 승리로 귀결된다는 큰 차이를 보여준다. 그 까닭은 무엇일까?

먼저 녹두 영감이 꾀를 낸 것의 양상을 보자. 녹두 영감은 "똥궁기다 꼿감을 찡기고 콧궁기다 대추로 찡기고 입에대가 밤을 물고 눈이다가 엿으로 봉하고 녹디밭이 가서 떠억 드누었다."[15] 영감이 사용한 것은 대개가 자연물 그 자체이다. 자연에 가까운 토끼와의 대결에서 자연물을 그대로 사용하여 패배를 자초했다. 영감은 동물과의 경쟁에서 꾀를 썼지만 토끼가 오히려 한 수 위였다. 영감은 도구보다는 아직 자연에 더 익숙했거나 아직은 자연물밖에 이용할 수 없는 단계일 수 있다. 아직은 도구 없이는 꾀로 동물을 이길 수 없었다.

이에 반해 팥죽할멈이 도움을 받은 것은 대개가 인공적 도구들이다. 날파리와 달걀도 있지만 바늘 송곳 지게 멍석 들이다. 모두 집 안에서 집 안에서 할머니와 지내는 도구들이다. 날파리와 달걀도 집 안에 있어서 인간과 친화되어 있다. 바늘 송곳 멍석 지게 같은 도구를 이용하는 것은 할머니가

14) 임석재 전집 10,『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편1, 〈할머니를 도운 파리 달걀 게 덕석 지게〉, 97쪽.

15) 임석재 전집 12,『한국구전설화』 경상북도편, 〈녹두영감과 토끼〉, 57쪽.

보다 문화화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인간은 이런 도구들을 이용해서 자연을 극복해왔다. 호랑이같이 적대적이고 무서운 동물을 이겨왔다.

⑬의 자료는 1928년 1월에 이은상이 전해주었다는 이야기인데 할머니가 꾀를 써서 도구들을 배치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자료이다. 녹두영감처럼 꾀를 쓰지만 숯불 바늘 덕석 등을 제 자리에 배치해 둔 것이다. 물론 이 자료에도 결국은 도구들이 능동적으로 움직인다. 가령 범은 "쇠똥에 미끄러져 벌떡 나자빠졌다. 그러자 마당에 있던 덕석이 와서 범을 돌돌 말아서 지게에게 주니 지게는 그것을 냉큼 짊어지고 바다로 가서 물 속에 내버렸다."[16]

이 설화의 특징은 도구들의 능동성이다. 위의 각편에서 서두부분과 함께 어떤 사물들이 할머니를 돕는지 보이면 다음과 같다.

①은 팥밭 매고 있는 할머니에게 백호 하나가 와서 잡아먹겠다고 한다./ 막대기 멍석 지게 송곳 달걀 자라 개똥.

②는 일하러 가는 할머니에게 호랑이가 잡아먹겠다고 한다./ 총알 송곳 맷돌 덕석 지게

③은 할머니가 사는 곳에 호랑이가 와서 오늘 저녁에 잡아먹겠다고 한다./ 지게 쇠똥 바늘 맷돌 달걀

④는 팥밭을 거두고 있는 할머니에게 호랑이가 와서 잡아먹겠다고 한다./ 달걀, 송곳 동아줄 멍석 지게

⑤는 호랑이가 팥죽을 한 솥 끓여달라고 해서 할머니가 내일 오라고 하고, 호랑이를 쫓기 위해 물건들을 배치해 놓는다. / 달걀 송곳 맷방석 지게 작대기

⑥은 식구를 다 잡아먹은 호랑이를 기다리며 팥죽이나 실컷 먹고 죽어야겠다고 팥죽을 쑤는 것으로 되어있다./ 계란 자라 절구통 멍석 지게 작대기

⑦은 팥밭을 매는 할머니에게 호랑이가 와서 잡아먹겠다고 하자 팥을 거두어서 팥죽이라도 먹은 후에 잡아먹으라고 한다./ 계란 자라 물개똥 송

16) 손진태, 『조선민족설화의 연구』, 〈쇠똥에 자빠진 범〉, 을유문화사, 1991, 135쪽,

곳 절구통 멍석 지게

⑧은 내기에 진 할머니가 호랑이에게 잡아먹힐까봐 울고 있으니 바늘이 말을 한다./ 파리 바늘 달걀 게 절구 덕석 지게

⑨은 팥밭 매기 내기에서 져서 호랑이가 할머니를 잡아먹겠다고 한다./ 파리 달걀 게 덕석 지게

⑩은 팥밭을 매는 할머니에게 호랑이가 밭을 매주고 잡아먹기로 한다. / 날파리 밤 송곳 지게 멍석 지게

⑪은 팥밭 매는 할머니와 호랑이가 밭매기 내기를 해서 할머니가 진다./ 파리 달걀, 게 지게 덕석

⑫영감이 죽고 나서 혼자 된 할머니 밭을 매고 있다가 호랑이와 밭매기 내기를 하게 되는 앞부분이 상대적으로 길게 서술되어 있다./ 달걀 게 파리 물통 덕석

⑬은 할머니가 호랑이를 꾀어 집으로 오게 하고, 집에 숯불, 고춧가루물통, 쇠똥, 바늘, 덕석을 배치해두어 호랑이를 처치한다는 점에서 특별한 양상을 띤다.

⑬을 제외한 나머지 자료들은 모두 할머니는 수동적인데 오히려 도구들이 알아서 호랑이를 물리치고 할머니를 잘 살게 도와준다. 이는 녹두영감의 꾀와 대조가 된다. 꾀는 인간이나 동물의 내면에 있는 것인 반면에 도구는 내면의 생각이 외면화, 객관화된 것이다.

바늘이나 송곳, 작대기 등은 인간의 손의 기능을 확대한다. 손으로 때리면 호랑이를 물리칠 수 없지만 송곳으로 찌르고 작대기로 때리면 그럴 수 있다. 손으로는 호랑이를 들어 내칠 수 없지만 멍석이 둘러싸고 지게가 들고 가면 그럴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공의 사물만 도구가 되는 것은 아니다. 날파리, 달걀이나 쇠똥 같은 자연물도 할머니의 의도대로 이용되면 도구가 된다. 파리가 불을 꺼서 호랑이를 당황하게 하고 쇠똥에 미끄러지게 하는 것은 할머니가 파리나 쇠똥을 도구로 이용한 것으로 간주된다. 꾀 자체가 아니라 도구가 인간을 강하게 하여 동물과의 경쟁에서 승리하게 했다.

도구들과의 친연성은 이들에게 팥죽을 한 그릇씩 먹여주는 것으로 형상화되어 있기도 하다.

녹두 영감은 아직 도구를 이용하지 못함을 재미있게 보여준다. 토끼는 쫓겨 가면서 자기 다리 대신 울타리를 잡게 하고 돌로 장독을 깨게 하고 나락에 불을 지르게 한다. 이로 보면 영감은 울타리, 장독, 볏나락 등을 소지하고 있는 인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토끼를 이기지 못한다. 오히려 토끼에게 당하는 빌미가 된다.

이것은 농경 시대에 접어들면서 남성적 원리의 부적절함에 대한 은유로 볼 수 있다. 녹두영감이 토끼와 대결하는 것은 사냥으로 다져진 남성적 적대성을 보인다. 할멈은 주변 생활도구들과의 화합으로 도움을 얻어 호랑이를 물리친다. 적대적 대결의 시대가 지나가고 도움과 화합의 시대로 접어들었음을 영감은 알지 못한 것이다. 그것이 〈녹두 영감〉 설화의 주체가 영감인 것에 반해 이 이야기의 주체는 할머니로 나타나는 이유이다. 〈녹두 영감〉 설화에도 할머니가 나오지만 주체는 영감으로 일관되게 구성되어 있다. 〈녹두 영감〉 설화는 남성이 자연과 대립하고 적대적으로 행동하다가 파멸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면, 〈팥죽할멈〉 설화는 여성이 자연과 대화와 타협을 시도하고 주변과의 조화를 통해 자연을 슬기롭게 개척하는 모습을 대비적으로 보여준다 하겠다. 이는 여성이 초기 농경에 큰 역할을 했을 것이라는 역사적 상황과 맞는다고 볼 수 있다.

할머니가 혼자 팥밭을 매거나 거두는 곳에 호랑이가 와서 말을 건다는 설화 초입 부분은 아직도 동물들과의 관계가 밀접했던 수렵시대의 자장 안에 있음을 말해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결말에서 할머니는 도구들의 도움을 받아 호랑이를 물리친다. 이는 인간이 자연에 종속되어 있던 시기를 끝내고 능동적으로 먹거리를 마련하고 문화적 삶을 개척해나가는 단계로 진입했음을 보여준다. 녹두영감이라면 호랑이와 직접 대결을 했을 것이다.

그리고 패했을 것이다. 토끼와의 싸움에서도 지게 된 영감은 호랑이를 이기지 못했을 것이다. 호랑이를 이기는 방법은 정면 대결이 아니라 도구를 이용하는 문화적 방법이었던 것이다. 이는 남성적 대결의 원리에서 여성적 문화의 원리로 이행되는 과정으로 이해해도 좋을 것이다

초기 농경이 여성의 손에서 발전했을 것임은 여성이 생명을 낳는 존재라는 상징성과도 깊은 관계를 맺는다. 캠벨이 정리해준대로, 수렵시대에 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것은 남성이었지만, 기초 신석기 시대에 접어들면서 여성의 경제적 기여가 더 중요하게 되었다. "여성은 씨를 뿌리고 곡물을 수확하는 일에 참여하였으며 또한 생명을 낳고 기르는 자로서, 대지의 생산성을 상징적으로 돕는 존재로 간주되었다."[17]

여기서 우리는 설화 구성의 민중적 지혜로움에 대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우선 이야기의 기본 소재가 되는 현실 상황으로 보자면, 노인 영감은 힘없는 토끼를 물리치는 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고 호랑이는 산 속에 혼자 사는 할머니를 쉽게 잡아먹었을 것이다. 그러나 승리와 패배에 관한 설화의 결말은 정반대이다. 이길 것 같은 영감은 지고 질 것 같은 할머니는 이긴다. 겉으로 보이는 것과 삶의 실상은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는 점을 지적하는 것이 이러한 설화가 갖는 지혜의 하나이다. 그런데 이 설화는 역사적 의미와 관련되어 있다. 영감은 자연의 대응을 자연으로 응대했기에 실패했다. 그것은 수렵시대의 사고방식으로 여겨진다. 동물과 인간이 적대적 관계에 놓이고 인간은 동물이 서로 사냥을 하듯이 동물을 사냥했다. 이것은 세계관의 패러다임 전환이라고 할 것이다. 이런 방식은 할머니가 제시한 도구를 이용한다는 문화적 단계로 이행하면서 의미가 퇴색했다고 보인다. 할머니는 도구를 통해서 자연과 간접 대응 관계로 접어들었다. 도구는 인간의 지혜와 능력을 배가시켜주었다. 상식적 또는 피상적 세계 인식을

17) 조지프 캠벨, 『신의 가면 1, 원시신화』, 이진구 옮김, 까치, 2003, 165쪽.

벗어나고 있음을 이러한 역사적 사실 자체를 통해 제시함으로써 세계를 바꾸어나가는 인간에 대한 이해를 높인다.

여기에는 또한 인간만이 아니라 토끼의 입장도 이해할 수 있게 하는 지혜가 있다. 토끼 편에서는 인간이 자신의 세계를 침범하는 적대자이다. 토끼의 입장을 이해함으로써 자연에 대한 일방적인 수탈이 옳기만 한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이해할 수 있다. 자신의 입장을 상대방의 입장에서 객관화시켜볼 수 있는 지혜를 암시한다.

4.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에 대한 새로운 이해

그런데 손진태는 〈팥죽할멈〉 설화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에 연결되어 있는 것이 몽고에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손진태는 일본 사람인 鳥居君子夫人이 蒙古의 왕녀로부터 들은 이야기를 모은 책에서 두 가지 설화를 소개하고 있다. 하나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인데 결말에 해와 달이 되는 화소가 없다. 둘째 것은 전반부에서 노파가 아이들에게 문을 열어달라고 하는 부분까지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와 같고, 그 이후는 계란 맷돌 가위 바늘 돼지머리 등이 아이들을 도와 노파를 해치운다. 그 다음 항목에서 손진태는 자료 ⑬ 〈쇠똥에 자빠진 범〉을 들고 이들은 "원래는 불전에서 나온 모양" "서장에서 몽고를 통하여 조선에 들어오게 된 모양"이라고 언급하였다.[18]

우리 설화자료에도 오누이가 해와 달이 되는 결말이 있는 설화도 있고 그렇지 않은 설화도 있다. 이지영은 이 설화 유형 전체를 하나로 보았을 때, 호랑이가 어머니를 잡아먹는 첫째 삽화, 심술궂은 호랑이 물리친 할머

18) 손진태, 앞의 책, 133-136쪽.

니 유형의 둘째 삽화, 오뉘가 일월이 되는 셋째 삽화가 결합된 것으로 보았다.[19] 성기열과 서대석도 결말의 日月 되기는 본 이야기에 첨가된 것으로 이해하였다.[20]

또한 『구비문학대계』 2-6, 강원도 횡성, 560쪽. 〈팥죽할멈과 호랑이〉/ 7-10, 경상북도 봉화, 331쪽. 〈팥죽할머니〉/ 7-12, 경상북도 군위, 144쪽. 〈팥죽할머니 이야기〉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 결말이 없는 이야기들인데 어머니가 팥죽할머니인 것이 특이하다.

〈팥죽할멈〉과 〈해와 달이 된 오누이〉는 어떤 관계일까? 단순히 결말이 후에 첨가된 것으로 보기보다 두 삽화의 결합에 대한 보다 근본적인 해명이 요구된다. 또한 〈녹두영감〉과 〈팥죽할멈〉을 현실의 반영으로 본 시각을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도 적용할 수 있는지의 여부도 생각을 요한다.

결말이 본 이야기와 필연적인 관계가 없다면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는 두 유형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하나는 아이들이 호랑이를 퇴치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아이들이 해와 달이 되는 것이다.

전자의 경우를 보자. 아이들이 호랑이를 퇴치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렵다. 그것은 할머니가 혼자서 호랑이를 물리치기 어려운 것과 같다. 여기에 필요한 것이 설화적으로 하늘의 도움이거나 도구의 도움이다. 도구의 도움으로 위기를 극복하는, 위의 ⑬으로 손진태가 소개한 〈쇠똥에 빠진 범〉과 같은 것이 『구비문학대계』 8-1, 310쪽 〈호랑이와 범벅〉으로 전한다. 김열규의 전언으로도 전하는 경남 거제의 전승도 있다.[21] 어머니를 잡아먹은 호랑이가 아이들까지 잡아먹으러 오자, 재 속의 밤, 바늘, 계란, 덕석, 지게가 호랑

19) 이지영,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전승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 15,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소, 2008, 171-215쪽.

20) 성기열, 『한일 민담의 비교연구』, 일조각, 1979, 184-185쪽.
서대석, 「한국신화와 민담의 세계관 연구」, 『국어국문학』 101, 국어국문학회, 1989, 23쪽.

21)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1, 40-42쪽.

이를 물리쳤다고 한다.[22] 하늘의 도움이어도 도끼와 참기름을 이용하여 호랑이로부터 벗어나는 오누이의 모습에는 도구를 이용하는 인간의 모습이 부각되어 있다. 도구를 이용해서 자연과 동물의 위협을 벗어나던 인간의 모습이 이 설화에 투영되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런 점에서 〈팥죽할멈〉 설화와 〈해와 달이 된 오누이〉설화는 통하는 면이 있고 그런 연유로 설화 전승자의 의식 속에서 두 설화가 하나로 결합될 수 있다고 여겨진다.

후자의 경우, 결말의 해와 달이 된 이야기를 창세신화와 연결지을 수도 있지만[23], 현실적인 맥락에서 읽어보자면 결국 호랑이에게 쫓긴 아이들이 죽었다는 것으로 이해하게 된다.[24] 호랑이에게 쫓겨 죽은 아이들이 해 신 달 신이 되었다는 식으로 보면 우리 서사무가에서 흔히 원통하게 죽은 사람이 신으로 좌정하는 이야기에 가깝게 된다. 같은 유형의 중국이나 몽고 설

22) 이 점에 대하여 이지영의 사실확인 정도의 언급이 있었을 뿐, 선행연구에서 해명하지 않았다. 일제 강점기에 이미 소개된 손진태의 자료가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연구가 없는 것은 그 자체만으로 해명하기 어려웠기 때문일 것이다. 이를 〈녹두영감〉과 〈팥죽할멈〉 설화와 견주어봄으로써 이해의 단서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인다.
조현설, 「〈해와 달이 된 오누이〉형 민담의 창조신화적 성격 재론〉, 『비교민속학』 33, 비교민속학회, 107-130쪽.
박종성,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유형들의 견주어읽기」, 『한국문학논총』 44, 한국문학회, 2006, 5-32쪽.
이지영,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전승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 15, 이화대학교 한국문화연구원, 2008, 171-215쪽.

23) 조현설은 〈해와달이 된 오누이〉 설화의 본질을 창조신화로 보고 있는데, 이는 이 설화의 결말 부분에 해당하는 것으로 타당한 지적이지만, 그 결말이 그 앞의 화소들과 필연적으로 연결되지는 않는다. 조현설, 「〈해와 달이 된 오누이〉형 민담의 창조신화적 성격 재론〉, 『비교민속학』 33, 비교민속학회, 107-130쪽.

24) 박정세도 "이 이야기의 역사적 현실은 여기에서 종결된 것으로 보인다. 오누이는 잡아먹힐 수 밖에 없는 것이 실제적 상황이요, 이러한 여건들은 끊임없이 반복되어 왔다고 하겠다."라고 하며, 이 설화의 역사적 현실을 일제 강점기의 횡포와 희생으로 연관짓고 있다. 이 설화가 일제 때 생겨난 것이 아니라면 이 해석에는 무리가 있으나, 설화의 배경을 역사적 현실 상황에서 비롯된 것으로 이해하는 시각은 동일하다.
박정세, 「해와 달이 된 오누이 민담에 투영된 역사적 현실과 민중의 희망」, 『신학사상』 94, 한국신학연구소 1996, 203쪽.

화에는 해와 달이 되는 결말이 없다는 사실[25]도 이 결말의 결합이 우리식 정서일 가능성을 말해준다고 하겠다.

결국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는 호랑이라는 무서운 동물 앞에서 약한 사람이 죽음을 피할 수 없었던 과거의 실상을 담고 있는 설화로 보인다. 그 죽음은 설화적으로 미화되거나 신격화되어 해와 달의 근원설화로 이어졌다고 생각해볼 수 있다. 그러나 〈팥죽할멈〉 설화에서 보았듯이 사람은 도구를 이용해서 자연을 이겨나간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에서의 혹독한 현실은 도구를 이용하는 인간의 모습을 띠면서 호랑이를 퇴치하는 아이들의 이야기로 변개가 가능하다. 도구의 도움으로 호랑이를 물리치는 〈팥죽할멈〉 이야기는 호랑이를 물리치는 아이들의 이야기와 결합할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이는 것이다.

이렇게 보면 〈해와 달이 된 오누이〉에서 어머니나 아이들이 호랑이에게 잡아먹힌다는 각편의 설화들은, 인간과 동물의 적대적 관계와 인간의 패배라는 점에서 〈녹두영감〉을 닮아 있고, 호랑이를 물리치는 것으로 귀결되는 각편들은 〈팥죽할멈〉과 유사한 설정이라고 할 수 있다. 물론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전반부의 배경은 농경과 연관되어 있지는 않다. 그러나 호랑이가 어머니에게서 떡을 빼앗아 먹는다는 것은 〈녹두영감〉의 녹두를 토끼가 빼앗아 먹는 것과 대비될 수 있다. 또 호랑이가 수수와 관련을 맺게 되는 결말에서도 우리는 호랑이의 죽음과 식물의 재배라는 배타적 관계 인식에 주목하게 된다. 수수가 신석기 시대, 우리나라에서는 청동기 시대부터 재배되던 이른 시기의 작물이라는 점을 고려해보면, 농경 초기에 작물 재배와 동물과의 적대적 관계를 떠올리게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이는 바로 녹두영감이 부딪혔던 문제였다.

---

25) 이지영,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의 동북아지역 전승과 그 특징」, 『동아시아고대학』 20, 동아시아고대학회, 2009, 305쪽.

이상의 논의를 통해서 이 세 유형의 동떨어진 설화들은 인간과 동물의 갈등, 농경과 자연에 대한 인간의 대응과 변화를 공통적으로 보여준다는 점에서 비교 연구의 타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이다.

5. 맺음말

〈녹두영감〉과 〈팥죽할멈〉 설화에 관한 본고의 해석은 지나치다고 비판받을 수 있다. 笑話에 지나지 않는 것인데 과중한 의미 부여에 천착했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 그러나 세 자료 모두 인간과 자연의 갈등, 농경, 자연에 대한 인간의 대응, 인간의 자연에 대한 인식과 그 변화 등을 공통으로 보여주고 있기에 비교 연구의 대상으로 충분한 자격이 있다. 이를 통해서 이들 설화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까지 새로운 시각으로 이해해볼 수 있었다.

그 발단이 된 것은 〈녹두영감〉 설화에서 보여준 동물과 인간 사이의 적대적 싸움과 인간의 패배에 대한 해석이었다. 손자를 할아버지가 삶아먹게 하여 할아버지에게 극심한 고통을 주는 내용들은 소화라고 웃고 지나가기에는 너무 심한 적대감이 부각되어 있다. 이 점에 대한 해명 없이는 이 설화를 이해했다고 할 수 없기에 녹두를 심는 영감과 그것을 빼앗아가는 토끼의 싸움을, 자연 이용을 놓고 인간과 동물이 벌이게 되는 경쟁으로 생각해보았다. 논이나 밭은 자연이 아니다. 논밭이 늘수록 동물의 터전은 줄어든다. 논밭은 결국 문명으로 발전할 것이었고 이제 동물의 힘은 보잘 것 없어졌다. 그러나 초기에는 동물과 인간의 갈등이 필연적이었을 것으로 상정된다. 인간이 논밭을 만들려 할 때마다 동물들이 방해를 했을 것이다. 호랑이 같은 무서운 동물로부터 토끼 같은 꾀많은 동물까지 동물들은 인간의 활동을

방해하고 생산물을 놓고 다투었을 것이다. 이 점이 이 설화에 반영되었다고 보았다. 역사 현실을 설화적으로 반영하고 있다고 해석한 것이다.

〈팥죽할멈〉 설화의 팥밭을 일구던 할머니는 〈녹두영감〉 설화의 영감과 달리 호랑이의 위협을 물리치고 팥죽을 맛있게 먹을 수 있게 되었다. 그것은 할머니 혼자의 힘이 아니고 바늘이며 멍석, 지게 등과 같은 집안에서 사용하는 도구들의 도움으로 가능했다. 녹두영감이 혼자서 토끼와 싸우다가 실패한 것과 대조되게 팥죽할멈 곁에는 다양한 집안 도구들이 있었다. 도구들은 인간의 내적 소망과 가능성을 외적으로 확대한 것이다. 인간은 도구를 이용해서 동물과 자연을 개발해왔다고 할 수 있다. 녹두영감의 논밭과 혼자만의 지혜로는 이루지 못했던 성과를 도구를 이용한 할멈은 이루었다. 할머니로 설정된 것은 농경 초기 단계 여성의 역할과 기여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도 무방할 것이다.

이와 같은 현실주의적 해석은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를 새롭게 조명해 주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가 연결되는 것은 〈팥죽할멈〉 설화와 묶여 있는 것이 여럿 전하기 때문이다. 전반부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에서 아이들이 있는 집으로 찾아온 호랑이까지이고 후반부는 집안의 도구들이 협동해서 호랑이를 물리치는 〈팥죽할멈〉 설화이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에서 오누이가 해와 달이 되는 결말 부분은 호랑이의 위협을 받는 할머니, 어머니, 아이들의 이야기인 전반부와 소종래가 다른 것이 결합한 것으로 보인다. 〈녹두영감〉과 〈팥죽할멈〉 설화를 보았던 시각을 연장해 적용해보면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는 실제로 호랑이 같은 짐승으로부터 위협을 당하고 살던 시기의 인간의 모습을 그린 것으로 이해된다. 이 설화를 흔히 심리학적으로 해석하거나 신화적 의미 부여를 하여왔는데, 그런 해석은 오늘날의 것이고 일차적으로는 이 설화는 동물의 위협을 받으며 싸워 나가던 문명 초기 인간의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된다.

원래 호랑이에게 희생되는 것으로 끝나던 이야기는 그 자체로 끝나는 각편이 많다. 거기에 다른 결말이 첨가된 이야기들이 두 종류 있다.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 중 오누이가 해와 달이 된 결말은 아이들이 호랑이에게 희생된 것을 신화적으로 처리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그 결말 대신에 〈팥죽할멈〉 설화와 연결되는 것은 도구를 이용해서 동물을 제압하고 문명을 이루어나가던 인간의 모습을 그리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참고문헌

임석재 전집 1,『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편1, 평민사, 1987, 1-316쪽.
임석재 전집 2,『한국구전설화』, 평안북도편2, 평민사, 1988, 1-331쪽.
임석재 전집 4,『한국구전설화』, 함경도 강원도편, 평민사, 1987, 1-313쪽.
임석재 전집 5,『한국구전설화』, 경기도편, 평민사, 1987, 1-412쪽.
임석재 전집 6,『한국구전설화』, 충청북도 충청남도편, 평민사, 1990, 1-487쪽.
임석재 전집 7,『한국구전설화』, 전라북도편1, 평민사, 1990, 1-371쪽.
임석재 전집 9,『한국구전설화』, 전라남도 제주도편, 평민사, 1992, 1-330쪽.
임석재 전집 10,『한국구전설화』, 경상남도편1, 평민사, 1993, 1-365쪽.
임석재 전집 12,『한국구전설화』 경상북도편, 평민사, 1993, 1-202쪽.
『한국구비문학대계』 7-4, 경북 성주,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1-600쪽.
『한국구비문학대계』 7-10, 경북 봉화,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98, 1-432쪽.
『한국구비문학대계』 7-13, 대구,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1-926쪽.
『한국구비문학대계』 8-5, 경남 거창, 한국정신문화연구원, 1981, 1-1160쪽.
『한국구비문학대계』 8-4, 경상남도 진주시, 한국정신문화연구원, 2002, 1-778쪽.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한국학중앙연구원,
권혁래, 〈팥죽할멈과 호랑이〉,『한국민속문학사전, 설화2』, 국립민속박물관, 2012.
박윤규,『팥죽할멈과 호랑이』, 시공주니어, 2007, 1-30쪽.
서정오,『팥죽할멈과 호랑이』, 보리, 2003, 1-40쪽.
양재홍,『팥죽할멈과 호랑이』, 교원, 2000, 1-36쪽.
서정오,『옛이야기 보따리』, 보리. 2011, 1-546쪽.
소중애,『팥죽할멈과 호랑이』, 비룡소, 2010, 1-36쪽.
박재철, 글 그림,『팥이 영감과 우르르 산토끼』, 길벗어린이, 2009, 1-32쪽.
박정세,「해와 달이 된 오누이 민담에 투영된 역사적 현실과 민중의 희망」,『신학사상』 94집, 한국신학연구소 1996, 192-211쪽.
박종성,「〈해와 달이 된 오누이〉 유형들의 견주어읽기」,『한국문학논총』 44, 한국문학회, 2006, 5-32쪽.
서대석,「한국신화와 민담의 세계관 연구」,『국어국문학』 101, 국어국문학회, 1989, 5-26쪽.

김기호, 「트릭스터 토끼설화군의 계통」, 『한국사상과 문화』 40, 한국사상과문화학회, 2007, 69-102쪽.
김열규, 『한국민속과 문학연구』, 일조각, 1971, 1-381쪽.
성기열, 『한일 민담의 비교연구』, 일조각, 1979, 1-269쪽.
손진태, 『조선민족설화의 연구』, 을유문화사, 1991, 1-239쪽.
신혜선, 「전래동화 「팥죽할멈과 호랑이」의 의미 분석」, 『열린유아교육연구』,14권6호, 한국열린유아교육학회, 2009, 467-487쪽.
이지영,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설화의 동북아지역 전승과 그 특징」, 『동아시아고대학』20집, 동아시아고대학회, 2009, 275-311쪽.
이지영, 「〈해와 달이 된 오누이〉의 전승과 그 특징에 관한 연구」, 『한국문화연구』15, 이화여대 한국문화연구소, 2008, 171-215쪽.
조현설, 「〈해와 달이 된 오누이〉형 민담의 창조신화적 성격 재론〉, 『비교민속학』33집, 비교민속학회, 2007, 107-130쪽.
슈스키/컬버트, 『인류학개론』, 이문웅 옮김, 일지사, 1981(1998년 10쇄). 1-340쪽.
조지프 캠벨, 『신의 가면 1, 원시신화』, 이진구 옮김, 까치, 2003, 1-576쪽.

* 이 논문은 2015년 11월 15일 투고되어 12월 5일 심사 완료하고 12월 10일 게재 확정함.

〈Abstract〉

Understanding Three Korean Folktales, "Mung-bean Codger", "Red-bean Soup Grandma" and "The Brother and Sister Who became the Sun and Moon"

Shin, Yeon-Woo(Seoul Tech National University)

"Mung-bean Codger", one of the Korean Folktales, describe the fight between the codger and hares who intrude into the mung-bean field. And it was cultivated by the codger. The codger, who wanted to punish the hares, was fooled inversely. It is shocking to find the codger boiled his own grandson and set his house afire. The antagonistic relations between them centers in farming or agriculture. We can understand it as the fight between man and nature-animal in the age of the beginning of agriculture. The more man cultivated farmland, he more the other animals resisted as they were to be submit to threats by the mankind. The codger did not take a compromising attitude, but tried to do away with hares. He draw ruin upon himself.

"Red-bean Soup Grandma" is the antithetic to "Mung-bean Codger." A grandma was sawing red-bean when a tiger came and threat her to vorant. The grandma beat him out with the help of straw-mat, needle, an A-frame carrier pole etc. Why did she win the fight when the codger lost? The grandma differ from the codger used the manmade and human-friendly tools. She was helped by the tools for life. She showed us how she formed the new relationship between man and the nature-animal. She won by arranging

compromise measure and tried to present the female principle seeking the harmony with the surroundings.

Now we can cast a new light upon the Korean folktale "The Brother and Sister Who became the Sun and Moon." It also is a tale of the past, which shows the strife between man and nature, the response to the agriculture of humankind. Originally the kids in the "The Brother and Sister Who became the Sun and Moon" seemed to be killed by the tiger like the codger's grandchild. That might be the real situation. And some of the versions of "The Brother and Sister" and "The Red-bean Soup Grandma" are resembling in repelling tigers using some tools.

Key words: Korean folktale, Mung-bean Codger, Red-bean Soup Grandma, The Brother and Sister Who became the Sun and Moon, tool, agriculture, nature